



즉시 배포용: 5/27/2015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CUOMO 주지사, 직불카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업소 관련 새 규제안 발표

약탈적 관행으로부터 근로자 임금을 더 잘 보호할 변경

Andrew M. Cuomo 지사는 오늘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 노동부가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에게 직불카드로 급여를 지불하는지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규제 초안을 공개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. 주 기록부에 오늘 나타나는 이 규제안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 임금을 지불하는 업소의 책임을 기술하고 고용주가 종업원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뉴욕주의 경우 약 **13,000** 기업이 약 **200,000**명의 근로자들에게 직불카드를 통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

“정직한 하루의 일에 대한 정직한 하루의 임금에 꼬리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”라고 **Cuomo** 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이러한 규제는 더욱 은밀한 형식의 임금 절취를 단속하여 뉴욕주에서 일하며 사는 수 십만 명의 직원들을 더 잘 보호할 것입니다.”

지금까지는 임금 직불카드가 현금, 수표 및 직접이체 같은 기타 결제 방법만큼 규제되지 않았습니다. 이 새 규제에 의거 직불카드를 통한 지급은 사전 동의를 요구할 것이며, 기업은 그것을 문서화하여 **6**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
변경안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그들이 무료로 임금을 찾을 수 있는 현지 장소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할 것입니다. 또한 고용주는 현지 네트워크 내에서의 무제한 무료 **ATM** 인출과 각 급여 기간에 임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.

“이러한 규제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. 그 중 다수는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약탈적 수수료에 더욱 취약합니다”라고 노동부 장관 대행 **Mario J. Musolino**가 말했습니다. “우리는 편의성과 부당 수수료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기안하였습니다. 근로자는 번 임금을 사취 당해서는 안 되며 현지 **ATM** 네트워크를 통해 무료로 임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.”

고객 서비스, 계좌 유지, 초과인출 및 휴지를 위한 수수료 같은 공통 수수료는 새 규칙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.

이 규제는 45일간의 공지 및 코멘트 기간 후에 발효될 것입니다.

뉴욕주의 모든 고용주는 각 급여일에 직원에게 임금 명세서 또는 명세표를 제공할 것이 요구됩니다. 그들은 또한 각 종업원이 근무한 기간, 임금을, 각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방법, 항목별 공제 및 고용주가 주장하는 크레딧(즉, 팁, 식사 및 숙박 수당)의 기록을 유지할 것이 요구됩니다.

임금 또는 기타 노동기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진정을 제기하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: 888-4-NYSDOL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